



김형호 교수

청계/A5신/430면/15,000원

김형호 교수(60,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가 펴낸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청계)은 하이데거를 불교적인 방식으로 접근, 해석한 책이다. 김교수는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세계를 재해석하기 위해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을 차용했다.

하이데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창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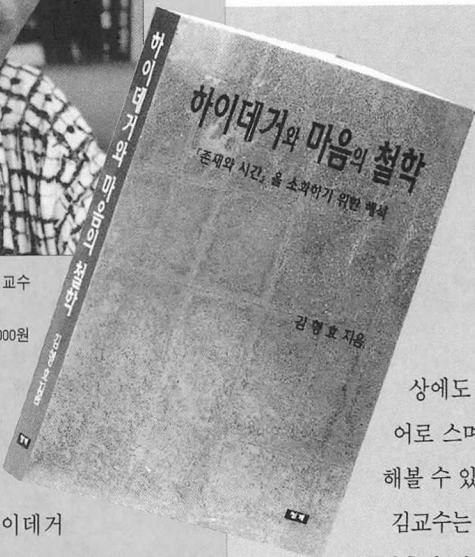
“하이데거와 불교는 서로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하이데거는 보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유식학적 관점에서 보면 심식(心識)입니다. 세상은 나의 관심과 마음의 수준 만큼만 보인다는 말이죠. 하이데거는 깨닫는 정신의 초탈적 사유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교수는 철학과 학부시절부터 하이데거를 공부했다. 그 시절 김교수는 스스로 하이데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데리다를 연구하던 중 문득 그가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하이데거를 다시 공부하면서 ‘하이데거가 데리다의 스승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까지 번졌다.

“데리다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사유에는 노장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장사상은 불교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사

불교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하이데거 철학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펴낸 김형호 교수



김형호 교수의 이번 저서는 불교를 통해 하이데거를 읽어냈다는 점에서 단연 이채롭다. 김교수는 하이데거가 정신의 초탈적 자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사상은 해체 정신으로 일관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라고 평가한다.

상에도 불교적 사유가 다른 언어로 스며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 해볼 수 있죠.”

김교수는 하이데거의 사상이 플라톤 이후의 서양철학사를 해체시킨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이데거를 실존적 현상학자로 봤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 소화하기 어려웠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사상이 실존적이고 현상학적인 요인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불가나 도가의 ‘언어놀이’를 펼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이데거의 ‘불안’과 제행무상

하이데거는 “불안이 무(無)를 계시한다”고 말했는데, 김교수는 하이데거가 말한 그 불안감이 존재의 본래성을 찾게 하는 마음을 일깨워 준다고 해석한다. 불안의 감정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청아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김교수는 하이데거가 말한 불안의 감정이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상통한다고 말한다.

“불안은 무상함과 통합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기분이 불안을 일으키고 그 불안감이 우리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불안’은 존재의 본래성을 되찾게 해주지만 ‘공포’는

그렇지 못하죠. 그 제행무상의 불안감이 마음의 본질인 무를 깨닫게 해주고 마음은 다시 제법무아(諸法無我)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다시 장자의 제물론(齊物論)과도 연결된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소요유(逍遙遊)의 초현실적 자유를 이해하는 자만이 세상을 공평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데거 역시 초탈상태인 자유의 마음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교수는 하이데거의 사유와 불교의 유식사상에서 일컫는 마음의 초탈이 초현실적이지만, 그 초현실성이 결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교수가 그동안 섭렵한 철학은 다채롭다. 베르그송·멜로 폰티·레비-스트로스·라캉·푸코·데리다 등 서구의 철학자들을 두루 연구했다. 그리고 맹자와 순자, 노자, 원효와 지눌 등의 동양사상에 관한 연구 역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실존철학에서 구조주의로, 그리고 다시 해체주의로 숨가쁘게 넘어 온 그의 철학 여정은 또 다시 다른 지점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어느 한 사유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그 한계가 보이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해석학자인 리피르를 연구해볼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저의 독자적인 사유세계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 최갑수 기자